

《요코 이야기》 파문

민족적 정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출판의 영역



《요코 이야기》를 읽지도 않고,
그에 관한 기사를 쓰는 것은
'무리' 라는 판단에 책을
먼저 사보기로 했다. 인터넷을
뒤졌더니 모두 '품질' 이라고 떴다. '품질'

이라는 글자를 보고 있자니 더욱 읽어야겠다는 '의욕' 이 생겼다. 회사 근처의 대형 서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요코 이야기》는 교보, 영풍, 반디앤루니스 어디에도 없었다. 매장 직원들은 "재고가 모두 '판매' 되었다"고 말하며, "내일 오후부터 들어올 것"이라고 친절하게 덧붙였다. 더러 '이것도 노이즈 마케팅인가' 하는 의심(?)이 일었다. 그러나 정작 다음날이 되어도 책을 살 수는 없었다. 출판사 측에서 '판매금지'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출판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책을 한 권 받을 수 있었다.

《요코 이야기》는 1986년 미국에서 처음 출간된 소설이다. 12살 일본 소녀가 겪은 1945년 전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저자인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는 재미 일본인으로, 이 소설은 그녀의 자전적 실화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는 약 10년 전부터 이 책을 중학 교과 과정 필독서로 선정하기도 했다. 미국 내 한인 사회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미국의 학생들이 이 소설을 통해 -일본인 학생이 인민군에게 살해당하는 장면, 일본인 여자에 대한 한국인의 성폭행 장면이 등장한다-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갖게 될 것을 우려해 왔다.

이 책은 중국과 일본에서는 출판이 금지되었고, 한국에서는

2005년 4월 문학동네에 의해 출간되었다. 책의 출간 사실이 지난 달 17일을 전후하여 이슈화되기 시작하면서 "얼빠진 한국, 일본마저 거부한 《요코 이야기》 출간"과 같은 자극적인 타이틀이 언론을 장식했다. 흥분한 네티즌들에 의해 삼시간에 문학동네의 홈페이지는 다운되었고, 문학동네는 홈페이지를 통해 17일과 24일에 걸쳐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결론은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요코 이야기》의 저자 부친이 731부대 고위 간부라는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한국어판의 출간과 판매를 중지한다"는 것이었다.

애초 출판사는 "이 책은 역사서가 아닌 소설이다. 소설은 소설의 관점에서 읽고 판단해 달라"는 논리로 대응했다. 맞는 얘기다. 소설은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허구의 글이다. 문제는 이 소설이 '자전'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 자전 소설은 수용적 측면에서는 '진실' 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 욕구가 존재하고, 발화적 측면에서는 '미화' 하고 싶은 욕망이 존재한다.

이 소설이 우리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자전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 '진실' 을 담보하는데, 그 '진실' 이 우리에게서 적반하장격의 억지라는 것. 예를 들어 주인공 요코가 회상하는 북한 나남에서 보낸 평화롭고 행복한 어린시절은 우리 민족에게는 일제의 압제가 극에 달했던 가장 슬프고 비참했던 한 때이다.

물론 이 소설은 문학적 입장에서만 보자면 나쁘지 않다. 전쟁의 참상을 다룬 전후 소설의 또 다른 발견이라고 할 수도 있다. 모든 분야가 그러하겠지만 문학은 특히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분야다. 출판사가 다양한 시각에 대한 '소신' 을 갖고 이 책의 출간을 결심했다면 그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지금은 언론에서 똑같은 목소리로 이 소설을 비난하고 있지만 작년에 이 소설이 출간되었을 당시 모 일간지는 특집으로 저자와 역자의 대담을 내보내기도 했다. 출판사로서는 출간 당시에 별 탈 없다가 이런 식으로 '뒷북' 을 맞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족의 정서와 관련된, 그것도 한국과 일본의 전후 상황을 다룬 소설을 '문학적' 으로만 읽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소설의 역사적 독법에 대한 가능성을 문학동네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아닐 것이다. 이런 '격렬함' 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렇다면 문학적 독법 이전에 민족적 정서로부터 '출판' 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 현실을 잠시 잊었던 모양이다. 아니면 너무 이 소설의 문학적성에 '자신' 있었거나. **주필**